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자 6명의 프로필

Grand Prix of Figure Skating Final 2009-2010		ISU		조애니 로세트(23)		안도 미키(22)		스즈키 아키코(23)		알레나 레오노바(19)		애슐리 와그너(18)	
김연아(19)	이름(나이)	캐나다	일본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	국적	캐나다	일본	일본	러시아	미국							
1m64cm	키	1m57cm	1m62cm	1m61cm	1m59cm	1m60cm							
210.03(1차·1위) 187.98(5차·1위)	올 시즌 2개 그랑프리 대회 점수	163.18(3차·3위) 182.91(6차·1위)	171.93(2차·1위) 162.55(4차·1위)	176.66(3차·1위) 147.72(6차·5위)	160.06(2차·3위) 160.85(4차·2위)	163.97(2차·2위) 155.99(4차·3위)							
398.01	합산 점수	346.08	334.48	324.38	320.91	319.96							

피겨퀸 김연아 올림픽 마지막 리허설

4일 그랑프리 파이널 日 대회... '무결점 연기' 다시 한번 도전

2010 밴쿠버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선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결전지인 일본 도쿄로 출발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이번 시즌 세 번째 무대인 그랑프리 파이널(12월 3-6일·도쿄)에 출전하는 김연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낮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해 도쿄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올 시즌 첫 대회였던 지난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자신이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207.71점)을 훌쩍 뛰어넘은 210.03점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 5차 대회에서는

쇼트프로그램에서 76.28점을 받아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 두 번의 대회에서 모두 2위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5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플립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트리플 러츠가 다운그레이드되는 등 전반적으로 점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5차 대회를 마치고 지난 17일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에 몰두해 왔다.

우선 프로그램의 정교함을 보완하고 몸에 확실하게 익혀 '무결점 연기'에 다시 한번 도전

해 지난 시즌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에게 내줬던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메달을 되찾는 것이 김연아의 당면 과제다.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금요일(4일)과 토요일(5일)에 연다는 점에서 김연아에게 유리하다.

김연아의 일반적인 스케줄은 한 주 동안 훈련을 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컨디션이 최고 정점에 올라서고,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시간으로 일요일이었던 지난 16일 5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을 치른 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던 김연아로서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

게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조건도 관찮은 만큼 지난 대회에서 스스로 인정했던 긴장감만 잘 관리한다면 다시 한번 최고 기록 경신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

아사다 마오가 이번 시즌 부진을 거듭한 끝에 탈락한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의 라이벌은 2009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조애니 로세트(캐나다)가 될 전망이다.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163.18점으로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지만 6차 대회에서는 182.90점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등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을 듣는 로세트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김연아와 금메달을 다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신용운〉 〈김희결〉 〈이상화〉 〈차정민〉

KIA 마운드 날개단다

신용운·김희결 등 군 제대

내년시즌 합류... 주전 경쟁

'에비역 호랑이'들로 KIA 타이거즈가 더 강해진다.

군복무를 마치고 2010 시즌 팀에 합류하는 선수는 투수 신용운을 비롯해 5명.

지난 10월 상무에서 제대한 투수 이상화·김희결은 곧바로 마무리 캠프가 차려진 남해로 내려가 훈련을 했다. 체력훈련은 물론 피칭훈련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내년 시즌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투수 차정민도 지난달 21일 경찰청 유니폼을 벗자마자 무등경기장에서 신고 선수들과 함께 몸을 풀었다. 투수 신용운과 야수 최훈락은 다음달 제대를 앞두고 있다.

KIA는 돌아오는 선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마운드 전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KIA는 올 시즌 로페즈, 구본슨, 양현종, 윤석민 등 막장 선발진들을 앞세워 우승행진을 하면서도 얇은 불펜진 탓에 불안한 한 해를 보냈다.

김희결·차정민은 프로무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재능있는 유망주로 꼽히던 투수들. 김희결은 2009년 프로야구 부문별 시상식에서 2군 북부리그 최고 평균 자책점(2.19)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눈도장을 찍었다. 차정민은 북부 당시 유승안 경찰청 감독으로부터 가장 구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화는 2006년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운드의 기대주로 떠올랐던 선수다. 신용운은 KIA에서 6시즌을 보내면서 3.33의 평균자책점으로 33승21패22세 이브를 기록했던 정상급 투수였다. 선발

과 마무리를 오가며 마당쇠 역할을 했던 신용운의 노련함은 경험이 적은 KIA 마운드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복귀로 마운드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사이드 투수들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차정민과 신용운은 사이드 투수. 올 시즌 마무리로 자리를 지켜준 유동훈과 1년 사이 부쩍 성장한 손영민 그리고 시즌 막판 희망을 보여준 전태현까지 모두 사이드 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시즌 주전자리를 향한 '사이드 전쟁'이 예고된다.

아쉬움을 남기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잠시 팀을 떠나는 선수들도 있다.

투수 임준혁과 진민오, 내야수 박진영과 외야수 이호신은 상무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난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이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상무 야구단의 유니폼을 입는다.

투수 오준형과 박정규, 포수 현승민, 내야수 유용묵은 경찰청 3기 멤버에 합격해 오는 17일 난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KIA 코칭스태프 워크숍

KIA 타이거즈 코칭스태프 전원이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야구회관에서 워크숍을 실시한다.

워크숍에는 조병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5명과 윤기두 운영팀장 등 프런트 6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2009시즌을 돌아보고 내년 시즌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병현 감독의 재계약 문제와 1군 선수단의 우승기념여행 등으로 늦어졌던 코칭스태프 개각 작업이 마무리되고, 2010년 전력구상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빛 질주

체코의 사르카 자흐롭스카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우디 FIS알파인 월드컵 스키 회전할강 여자결승전에서 기문을 통과한 후 전력을 다해 활강하고 있다. 이날 사르카는 1분43초45를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우즈 "차 사고는 내 잘못" ... 우치텔, 불륜설 부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내연녀로 지목된 미국 뉴욕 클럽의 VIP 호스티스 레이첼 우치텔(34)이 항간의 불륜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NY데일리뉴스와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9일 우치텔이 우즈와 만남을 가져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이번 일에 대처하기 위해 유명 변호사인 글로리아 올레드를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를 만나고자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기 전 우치텔은 집 앞에 모인 기자들에게 "나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서 미국 타블로이드 매체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TMZ닷컴이 제기한 우즈와의 불륜설을 일축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폴라 존스 성추행 사건과 OJ심슨 사건을 맡기도 했던 올레드 변호인은 우치텔이 앞으로 우즈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클래머 미인인 우치텔은 우즈 이외에도 미국 드라마 '본즈'에 출연한 유우남 배우 데이비드 보레아나와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녀는 지난해 자신이 유명 야구선수 와 뮤지컬 배우, 음악인들과 사귀었다고 밝

히기도 했다.

우치텔은 또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에 근무하던 약혼자를 잃었는데 2년 뒤 역시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다른 남성 과 결혼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결혼은 4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편 타이거 우즈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자신의 심야 교통사고 경위와 관련, 29일 성명을 통해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우즈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번 주에 일어난 차 사고 때문에 약간 찢어지고 멍



미국 연예전문 매체인 TMZ닷컴이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플로리다 아이일리스 자택 앞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부서진 타이거 우즈의 캐딜락 SUV 차량. /연합뉴스

이 들어 지금도 약간 통증이 있다"면서 "이번 상황은 내 잘못이며 내 가족과 나에게 분명히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성훈, 美 PGA 무대 도전

강성훈(22·신한은행)이 한국 골프선수로 는 네번째 PGA 투어 멤버에 도전한다.

강성훈은 2일부터 6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배어 레이크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PGA 투어 퀴리파이닝스쿨에 참가한다.

2007년 화려하게 한국프로골프(KPGA)에 데뷔해 2008년 신인상까지 받았던 강성훈은 지난 22일 끝난 퀴리파이닝스쿨 예선 2차전에서 공동 7위에 올라 최종전 티켓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강성훈이 마지막 관문에서 25위 안에 들면 한국 국적 선수로는 최경주(39·나이지키골프), 양용은,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에 이어 네번째 한국인 PGA 투어 멤버가 된다.

하지만 이번 퀴리파이닝스쿨에는 KPGA에서 활약하는 토종 한국인 선수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퀴리파이닝스쿨에 도전했던 한국 상급왕 배상문(23·키움증권)은 일본 퀴리파이닝스쿨로 눈을 돌렸고 올 시즌 2등을 거둔 이승호(23·토마토저축은행)는 예선 2차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